

바울은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있었다. 본문에서는 세 번이나 ‘매임’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13, 14,17절)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며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리의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에게 고통을 주려는 마음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개인적으로 감옥에 갇히고, 교회 안에는 분쟁과 다툼이 있고, 교회 밖에는 핍박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기 쉬운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18절)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환경에 묶이지 않는(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더 귀한 가치, 사명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본문에서 설명해 줍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복음이 전파의 사명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12절, 18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시위대 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 착한 뜻으로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사명이며, 그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고, 상황에 매이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삶의 가치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20절)

‘존귀케 한다’는 원어의 뜻은 ‘가장 크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크게, 가장 높이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커지면 다른 것은 작아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3~9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예전에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한 것도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진정한 가치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상황에 매이지 않는 기쁨, ‘도리어’의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QT

이번 주 QT 말씀

1/11(월)	1/12(화)	1/13(수)	1/14(목)	1/15(금)	1/16(토)	1/17(주일)
요삼 1:1-15	마 1:1-17	마 1:18-25	마 2:1-12	마 2:13-23	마 3:1-10	마 3:11-17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설교를 통하여 새롭게 깨닫거나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씩 나누어 보세요.
2.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3. 예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 보세요.